

광주 수창초 신입생 겨우 10명 전남 분교 42곳은 신입생 없어

교권 붕괴 속 떠나는 교사도 크게 증가

수창초교의 올해 신입생이 10명에 그치는 등 광주 구 도심지역 초교의 신입생수가 20명대로 내려앉았다.

이들 학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신입생이 500~600명에 달했으나, 도심 침체로 인구유입이 끊기면서 신입생이 격감하고 있다. 전남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능과 저출산 등으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광주수창초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체 학생수가 323명(12학급)이었으나, 지난해 188명(8학급)으로 41.7%(135명) 격감했고 올해 신입생은 10명에 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산수초교의 경우 지난 2007년 3월 현재 학생수가 564명(20학급)이었으나, 2011년 같은 기간 313명(15학급)으로 44.5%(251명) 줄어 들어 올해 24명이 입학예정이다. 서석초교도 같은 기간 학생수가 35.2%(162명) 떨어졌고 올해 신입생은 27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에서는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크게 늘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급을 가려내며 본 결과 장흥안양초교 등 분교 3곳과 신안 지도초교 선지분교장 등 분교 42곳(전체 87곳의 48.3%)에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 분교 가운데 33곳은 지난해에도 신입생이 없었다. 이밖에 전교생이 단 1명인 학교는 고흥남양초우도 분교 등 6곳, 5명 이내인 학교가 33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분교 3곳 등 6곳을 폐쇄하는 등 선별과 집중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처럼 학생수가 감소한 이유로는 전남의 경우 저조한 출산율에 열악

한 교육여건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농현상이 심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광주에서는 구도심이 침체돼 상대적으로 인구 유입이 없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집계 결과 지난해 명예퇴직을 통해 학교를 떠난 교원은 모두 358명(광주 112명·전남 246명)으로 파악됐다. 2010년 308명(광주 91명, 전남 217명)보다 50명(16.2%) 증가한 것이다.

사립학교의 증가 폭이 커 광주는 33명에서 46명으로, 전남은 25명에서 34명으로 명퇴자 수가 늘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권 붕괴, 교원평가제 도입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데다 연금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명퇴를 선택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생수가 감소한 이유로는 전남의 경우 저조한 출산율에 열악

한 교육여건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농현상이 심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광주에서는 구도심이 침체돼 상대적으로 인구 유입이 없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집계 결과 지난해 명예퇴직을 통해 학교를 떠난 교원은 모두 358명(광주 112명·전남 246명)으로 파악됐다. 2010년 308명(광주 91명, 전남 217명)보다 50명(16.2%) 증가한 것이다.

사립학교의 증가 폭이 커 광주는 33명에서 46명으로, 전남은 25명에서 34명으로 명퇴자 수가 늘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권 붕괴, 교원평가제 도입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데다 연금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명퇴를 선택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생수가 감소한 이유로는 전남의 경우 저조한 출산율에 열악

"5·18 인정교과서 개정·보급 전국에 확대"

재단, 31개 사업 계획 발표

5·18기념재단(이사장 김준태)이 15일 "올해 주요사업 방향을 '세계가 기억할 5월, 다시 만나는 5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또 올해 동안 총 31개 사업을 ▲기념사업 ▲교류연대 ▲교육문화 ▲진실조사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5·18 인정교과서 개정·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5·18 사적지들을 연결하는 '오월 길'

을 개발하고 관련 공원을 마련,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5·18 기록물 관리·보존에 집중하고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올해 치러질 광주아시아 포럼에서는 국가 폭력 희생자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워크숍을 여는 등 국내외 교류와 연대를 확대할 예정이다. 5·18 진문력 양성을 위해 광주아시아인권학교와 5·18 아카데미 과정도 통합해

운영한다.

지난해 5·18 왜곡시도와 5·18 관련 사법처리자 국립묘지 안정을 계기로 구성된 반달가슴곰 시민사회 기구와 연대, 역사정의를 실현하고 국립묘지 영예성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5·18 거버넌스포럼을 개최하고 5·18 문학축제를 발간하기로 하는 등 신규분야사업도 선정했다.

김준태 이사장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재단이 뚜렷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0분 해질 17시 44분 달출 00시 12분 달진 11시 31분

구름 낀 하늘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다.

구분	구름	기온
광주	구름조금	-3/7℃
목포	구름조금	-2/7℃
여수	구름조금	1/8℃
나주	구름조금	-5/8℃
완도	구름조금	-3/8℃
구례	구름조금	-5/8℃
강진	구름조금	-4/8℃
해남	구름조금	-5/8℃
장흥	구름조금	-5/9℃
순천	구름조금	-2/9℃
영광	구름조금	-4/6℃
진도	구름조금	-3/8℃
전주	구름조금	-5/7℃
군산	구름조금	-5/6℃
남원	구름조금	-8/8℃
혁신도	구름조금	2/5℃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목포 07:03 12:11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여수 01:47 07:49
 14:00 20:14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7	0/8	1/8	3/7	3/7	1/6



1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올림동 무등산 중심사 집단시설지구. 1년전만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시민들이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이곳은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시민들의 여유로운 휴식공간으로 바뀌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증심사 지구, 외부차량 출입통제 진짜 휴식공간이 되다

매출감소 대책 필요 편의시설 확충돼야

주말과 휴일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무등산 중심사 집단시설지구 상가 주변이 외부차량 진입 통제 1년 만에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14일 오후 찾아가면 광주시 동구 올림동 무등산 중심사 집단시설지구 상가 주변은 등산객 가게를 둘러보고 식당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폭 6m 도로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시민들이 부딪히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던 상황(광주일보 2010년 11월 22일·29일 6면)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당시에는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난장판으로 변해 운전자들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고 접촉사고도 잇따라 민원

이 쇄도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해 초부터 평일 오전 11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4시까지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상가 주민들의 차량 진입만을 허용했다. 그러나 차량 통제 이후 인근 30여 상가가 매출 급감 등의 어려움으로 탈바꿈했다. 이기주(63) 전 무등산 중심사 지구 상가변영회장은 "상가지구가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휴식공간으로 변모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일부 상가들은 20~40%까지 매출이 떨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산객 김정주(52)씨는 "앞으로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외지인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더 확충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롯데제이티비 롯데그룹의 유일한 여행사입니다. 여행 문의 1577-6511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롯데카드 3% 청구할인!

롯데제이티비 특가상품 시리즈!

- *플옵션+상그릴라호텔!!!
- *플옵션+메리엇 3박!!!
- *신 낭만의~크루즈!!!

광주지점 이전기념! 특별 EVENT *유류할증료 불포함

예약자 전원 롯데백화점* 5만원 상품권 증정!!! (성인1인1매)

오사카/나라/교토 899,000원부터

상해/항주/소주 379,000원부터

인도 완전일주 1,490,000원부터

북경/관리장성 359,000원부터

유럽

서유럽 6/8국

동남아

스페셜

남태평양

미주/중남미

대표전화 1577-6511

▶광주점 :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기아점

▶전남점 :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